

Siam, TPC 인수 PVC 강자 부상

포트폴리오 확대전략 따라 PVC 메이커 인수 ... CPB와 100% 인수

Siam Cement가 동남아 최대 PVC(Polyvinyl Chloride) 생산기업인 TPC(Thai Plastic & Chemicals)의 지분 10.14%를 Thasco Chemical로부터 주당 180바트(4.42달러), 총 16억바트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Siam Cement는 인수를 통해 TPC 지분을 36.27%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인 CPB Equity와 합하면 57.22%에 달하게 된다. CPB는 Siam Cement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Siam Cement와 CPB의 TPC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타이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Siam Cement가 TPC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 주식매입신청(Tender Offer)을 할 수 있게 된다. Siam Cement는 8월까지 매입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iam Cement의 TPC 인수는 자사의 석유화학 포트폴리오 확대전략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TPC는 연평균 매출 181억바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PVC 70만톤, VCM(Vinyl Chloride Monomer) 44만톤, EDC(Ethylene Dichloride) 11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12>